

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9. SPRING vol. 019



별을 쏘다 ★

2019 SPRING vol. 019

발행일, 2019년 3월 7일 (통권 제19호)

발행인,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04



14



22



Driving New Technology

04 New Year's Address "창조적 신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갑시다!

07 Issue&News

10 2018 Top News 2018 성우하이텍 10대 뉴스

12 SUNGWO Family 황금돼지해를 풍성히! 성우가족, "복" 받아가세요~

14 Education 더 높게, 더 낮게, 더 빠르게! 우리는 성우인입니다!

20 New SUNGWO 전사가 개선활동 의지를 공유하다
- 제2회 가라쿠리 경진대회

'도전'을 이어가며 혁신의 역사를 세우다
-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 중간발표회

24 History of Sungwoo Hitech 도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더 빛날 미래를 그리다

26 Happy Together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행복'

28 Car Life CES 2019와 자동차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 30 Together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32 SUNGWOO People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를 만나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한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 36 Unique SUNGWOO 붓을 치며 '나'를 새기는 시간 - 글로벌개발팀 정창영 부장
7전 8기의 마음으로 도전은 계속된다! - 성우하이텍 볼링팀
- 42 Challenge SUNGWOO 마라토너들의 대물결,
낙동강 하구언을 따라 또 하나의 강줄기 되다
- 44 Movie 음악영화 불패의 시장, 흥의 민족 한국인이 사랑한 음악영화
- 48 Going 소두방에서 오시리아까지 부산 기장 힐링여행
-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 54 Social Contribution 사랑 듬뿍 담긴 성우택 손맛 한번 보실래요?
- 57 Event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II

“창조적 신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갑시다!



성우하이텍 임직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임직원 여러분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슬기로운 지혜가 모여
내우외환의 파고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창조적 신기술”

지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고, 소홀했던 부분은 개선의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몇 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보였고, 다른 곳에서는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지난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한 2019년이 되기 위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창조적 신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은 어느새 우리 삶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먼 발치에 있다고 여기던 자율주행차, 전기차 분야가 세계 시장의 대세적 흐름이 되었고, 비행자동차의 상용화까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우하이텍은 창조적 신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차체, 자율 주행, 전기차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신사업에 대한 창조적 개척을 해나가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타성에 젖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을 빛나게 한 사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찬란한 내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사람은 기술 혁명 시대에도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문화를 정착하여야 하고,
위험 요인 발생 시 누구나 작업 중지를 명령하여 안전사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속을 누비는 성우하이텍 안에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힘쓰는 사람이 넘쳐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성우 가족 여러분!
황금돼지해에 걸맞게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넘쳐흐르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성우하이텍 회장

이명준



Let's create new value with "creative new technology!"

Greetings to all employees of Sungwoo Hitech!

A new morning has dawned in 2019, the year of the golden pig.

During this past eventful year, all of you gathered together your united spirit and wise sagacity and were able to overcome and push forward even from amongst the tension of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I would like to express to you my deep gratitude for the steadfast hard work all of you have displayed.

"Creative New Technology"

The steps we took last year for the sake of turning crisis into opportunity suffered no hesitations.

We pruned our strengths and made them even sharper than before, and discovered courses of improvement regarding areas in which we were careless.

In some areas remarkable results were displayed, and in other areas results just began to appear.

So that 2019 can become a year working to let last year, when seeds were sown and buds appeared, to flower and bear fruit, this is a time when creative new technology is needed that will lead the market and create new value.

A time when imagination stretches out into realit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lready become our life.

As deep learning becomes possible where AI, on a basis of big data, can learn by itself according to algorithms, rapid changes are arising across all fields of the industry. Within the automobile industry, the areas of autonomous vehicles and electric cars, which even just a few years ago were considered far-off innovations, have become part of the general currents in the global market,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flying cars is now right before our eyes.

Our company, Sungwoo Hitech, must use creative new technology to become a business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car body, autonomous driving, and electric car fields, we need to perform continuous research and also creative pioneering regarding new projects. We need a change, through a Capernican revolution, in the thoughts and actions which we are stuck in the habit of thinking and doing. We shouldn't be satisfied with the projects that have made today shine bright, but must search out new projects that will enable tomorrow to be even more radiant.

Even in an age of technological revolution, people are still the highest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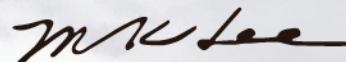
We must hold a rigid sense of duty and establish a culture of safety, where everyone commands a cease in operations when risk factors arise so that no-one has to suffer because of a safety accident.

Within Sungwoo Hitech, which crisscrosses around the whole world, we will support our employees so that our company is overflowing with people making an effort at self-improvement so as to have dreams and realize them.

Members of our Sungwoo family!

I wish that, commensurate with the year of the golden pig, all of your households are always overflowing with health and happiness, and all the things you are hoping for become amply realized.

Chairman Lee, Myung-Keun



2019년도 시무식 개최



1월 3일 국내 및 해외 사업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한 가운데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2019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신년사에서 “창조적 신기술”을 올해의 슬로건으로 선포하였다. 프레스 생산성 향상, 금형 공법 개선, 혁신사관학교 출범, 가라쿠리 경진 대회 개최 등 전년도 슬로건인 “위기를 기회로”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임직원들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2019년의 외부 환경도 녹록하지 않지만, “창조적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발판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자고 역설하였다. 2018년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은 생산기술1팀 김정훈 과장과 아산 지그보전반 박종명 반장이 수상하였고, 원가절감, 성과포상건수, S-Thanks건수, 개선활동 등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모범이 된 47명에게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 [관련 기사: 4p](#)

올해의 협력사(안전관리부문) 수상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으로부터 ‘2018 올해의 협력사(안전관리부문)’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상하였다. (주)성우하이텍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대외기관 안전 부문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고 있으며, 매년 대표이사 주관 하에 안전결의대회, BCMS(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집체 모의 훈련, 안전기원통신문 각 임직원 가정 발송을 하고 있다. 매월 집체 안전 조례 및 안전캠페인을 진행하여 대표이사(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임직원들에게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2016년 이후 무재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위험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보강을 꾸준히 하여 산재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이와 같은 그동안의 공로가 인정받은 유의미한 수상으로, 앞으로도 성우하이텍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대내외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 중간 발표회 개최



12월 27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우혁신사관학교 (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 2기생들의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기생들 전원이 총 3개 조로 나누어 각각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임직원들에게 설명하였고, 조마다 선정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선정 이유, 현황, 문제점 분석, 해결 방안, 개선 결과를 소개하였다. 3개월간 노력한 2기생들에게 참석자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강평을 통하여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생들의 진지한 태도에 감사를 표현하였고, 계속 노력하여 성우하이텍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련 기사: 22p

2018년 정년퇴임식 개최



12월 27일, 서창공장 6층 대강당에서 정년을 맞은 이상채 기장(금형반), 정용곤 기장(가공2반), 강인재 기장(조립2반), 최희곤 조장(지사 조립계)에 대한 퇴임식을 가졌다.

고락을 함께 해온 동료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퇴임사를 낭독하는 네 분의 말씀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네 분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감사함을 표현하였고, 제2의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 관련 기사: 34p

성우하이텍어린이집, '2018 우수 어린이 급식소' 선정



성우하이텍어린이집이 '2018 우수 어린이 급식소'로 선정되어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상장 및 현판을 받았다. '2018 우수 어린이 급식소'는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기관(18년 12월말 기준, 305개소)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수준을 연 6회 점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15개 어린이집이 선정되었고, 성우하이텍어린이집은 2년 연속 우수 어린이 급식소로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우수 조리사로 선정과 함께 '청결관' 상도 수상하여 기쁨을 더했다. » 관련 기사: 26p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20회 부산마라톤대회 성료



8000여 마라토너가 참여한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 20회 부산마라톤 대회'가 11월 11일 오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렸다.

깊어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부산에서 1년에 딱 한 번 폴코스(42.195km)를 뛰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대포 해수욕장과 낙동강 일대 등 서부 부산의 절경을 두 발로 누빌 수 있다. 이번 마라톤 대회 메인 후원사인 성우하이텍은 도종복 부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예년에 비해 따스한 날씨 속에서 청량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관련 기사: 42p

2018 겨울앓(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12월 6일 양산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희망웅상 및 웅상나눔회와 함께 '겨울앓(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목요일 아침부터 지역의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과 성우하이텍 임직원 100여 명이 모여 70박스(각 20kg) 분량의 배추김치와 무김치를 만들었다. 지난해에 비해 200kg 늘어난 분량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이웃 사랑을 조금 더 실현하고자 하는 '성우공동모금'의 의지를 담았다. 이날 담긴 김치는 웅상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었다. » 관련 기사: 54p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12월 18일 서창공장 대강당(정관, 장안, 지사, 수원, 핫스탬핑, 아산은 화상연결)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주희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누구나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갖고 있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에티켓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주)성우하이텍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편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인다"를 모토로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관련 기사: 30p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2018 성우하이텍 10대 뉴스

지난 한 해도 성우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우하이텍의 1년을 든든히 채워주었다. 성실히 일한 하루하루가 모여 성우하이텍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2018년의 성과들.

성우 가족들이 직접 뽑은 2018년 최고의 순간들을 소개한다. 🎉

1

RG3 알루미늄 도어 양산라인 개발 (2월)

1 RG3 알루미늄 도어 양산라인 개발 (2월)

10.5%

- 2018. 2 알루미늄 도어 TFT 활동 시작
- 2018. 3 알루미늄 접합 요소기술 개발 시작(레이저/SPR/RUN/AL SPOT)
- 2019. 1 알루미늄 도어 조립라인 시운전 및 제품 테스트 생산
- 2019. 9 양산 개시

<주요 적용 신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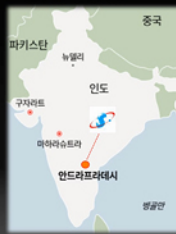
2

인도 SHAP 공장 착공 (5월)

2 인도 SHAP 공장 착공 (5월)

10.1%

- 규모 : 16,000평
- 양산 예정 : 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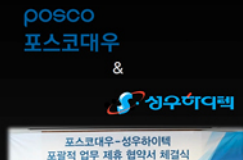


3

포스코대우 & 성우하이텍 MOU 체결 (9월)

3 포스코대우 & 성우하이텍 MOU 체결 (9월)

10%



- 가공, 판매, 기술지원 등 솔루션 마케팅 확보
-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자동차산업 환경변화 대응
- 철강 소재 및 차체 부품 통합 공급망 구축
- 글로벌 자동차 공동 개발 마케팅 활동



4

LGE Bev-x SAV BATTERY PACK 수주 (12월)

4 LGE Bev-x SAV BATTERY PACK 수주 (12월)

9.5%

- LG 전자 Bev-x SAV 배터리팩 프로젝트
- 예상공급량 : 144,000/7년



5

이스라엘 ADASKY 투자계약 체결 (11월)

5 이스라엘 ADASKY 투자계약 체결 (11월)

7.3%

- 성우하이텍, 이스라엘 자율주행차 업체 ADASKY 2천만 달러 투자
- 자율 주행차(센서) 분야 연구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6

GM 올해의 협력사상(SOY) 수상 (4월)

6 GM 올해의 협력사상(SOY) 수상 (4월)

6.8%

- BODY & EXTERIOR 부문 수상



7

독일 WMUB G14/G15/G20 양산 (7월, 11월)

7 독일 WMUB G14/G15/G20 양산 (7월, 11월)

6.5%

- 2018년 7월 G15(8 series coupe) 양산
- 2018년 11월 G14(8 series cabrio) 양산
- 2018년 11월 G20(3 series sedan) 양산



8

폴란드 글리비체 신 공장 (11월)

8 폴란드 글리비체 신공장 (11월)

6.3%

- 폴란드 소몰트레스 공장 전용
- 규모 : 약 3,000평



9

새로운 통합 ERP 시스템 (SAP 및 e-HR) 구축 (9월)

9 새로운 통합 ERP 시스템 (SAP 및 e-HR) 구축 (9월)

5.9%

- 성우하이텍 표준 프로세스 제시



10

멕시코 성우 BIQS Level 5 인증 취득 (12월)

10 멕시코 성우 BIQS Level 5 인증 취득 (12월)

5.1%

- GM 멕시코 자체 업계 최고 LEVEL 5 달성 (2018년 12월 11일)



황금돼지해를 풍성히!

성우가족, "복" 받아가세요~

성우하이텍은 매년 시무식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성우가족들의 새해인사를 상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성우 가족들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며 한층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는 후문.
끼 많고 흥 가득한 성우 가족의 2019년 새해맞이 인사를 만나보자.







더 높게, 더 낮게, 더 빠르게! 우리는 성우인입니다!

치열한 입사과정을 거쳐 드디어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139명.
취업 준비생에서 당당한 성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일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기업문화와 가치, 비전 등 성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 신입사원 입문교육이다.



STORY 1

Field Tour



첫 자원증을 받아듣고

“열린 맘으로 모두 하나되어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2019년 1월 3일. R&D센터 글로벌 품질확보동 교육장에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가 들려왔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신입사원들, 시무식 전 간단한 교육을 진행한 후 사가를 배우는 중이다. 아직은 입에 붙지 않는 사가를 더듬거리고 해외 사업장이 함께한 시무식을 보는 동안 성우인이 되었다는 걸 실감하였다.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온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서 ‘창조적 신기술’로 시대를 선도하자”는 이명근 회장의 신년사를 들을 때에는 눈빛이 더욱 빛났다. 오늘의 성우하이텍을 이끈 사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 개발로 내일을 준비하자는 신년사처럼, 미래의 성우하이텍을 책임지고 이끌 신입사원들의 의지가 엿보였다.

시무식에 이어진 오후 일정은 현장 투어. R&D센터, 금형공장, 서창공장, 코일센타 순으로 진행된 현장 투어를 통해 선배 성우인들의 발자취를 확인하였다. 신입사원들은 현장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현장 작업자들의 노고를 눈으로 확인하며 작은 설명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였다. 139명의 대규모 인원이 정렬을 하고 현장 곳곳을 누비는 모습에 선배 사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성우의 어제와 오늘을 배우고 미래를 그려본 시간

첫 출근 후 차주 월요일인 1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본격적인 입문교육이 진행되었다. 첫 일정은 팀 빌딩 및 <도전 골든벨>을 통한 성우하이텍 알아가기. 전체 인원을 A와 B 두 개 반으로 나눈 신입사원들은 교육을 받으며 성우하이텍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인사정보사업본부 도종복 부사장이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 <성우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성우하이텍 42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회에 신입사원들은 어느 때보다 눈을 빛내며 집중하였다.

입문교육 이튿날부터의 일정은 신입사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졌다. 변화무쌍한 날씨의 바다를 헤치고 신대륙으로 향해 가는 여정인 <콜롬버스 어드벤처>도 그 중 하나.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능력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팀워크와 협업,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눈에 보이는 미래 전기차 제작 시뮬레이션>은 특히나 열정을 보인 활동이었다. 팀별 콘셉트와 본인의 재량에 따라 자동차 조립 조와 디자인 조로 팀원을 나눈 신입사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완성해가는 한편, 각각의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였다. 차체 뼈대를 만드는 기초단계부터 콘셉트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해가는 과정, 영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기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과정에 개인의 역량은 물론 팀 협업이 돋보였다.

새내기 성우인들이 만들어낸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창조의 근원을 우주에서 찾은 우주선 콘셉트의 자동차,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을 담은 무한한 도전을 표현한 자동차, 차체 경량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자동차, 위라벨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아이와 여성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담은 자동차 등 다양각색의 자동차들이 선을 보였다. 미션 수행 후 각자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보는 동료들에게 신입사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었다. 결과만큼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미션 수행 후 각자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보는 동료들에게 신입사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었다.



STORY 3

Presentation



끼와 열정을 발산하다

교육 마지막 날, 신입사원들은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4박 5일간의 입문 교육 틈틈이 연습한 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의 콘셉트는 창립 60년을 맞이한 2037년의 성우하이텍. 20년 후 성우하이텍은 어떤 모습일지를, 입사를 앞둔 2037년 지원자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성우하이텍의 과거(1977년~2000년)와 현재(2000년~2019년), 미래(2019년~2037년)를 관통하는 구성이 돋보였다.

성우의 과거

<성우앨범>과 <IMF 노사협상> 상황극: 성우하이텍 역사의 주요 순간들을 사진첩 콘셉트로 재연한 <성우 앨범>과 노사 간 믿음을 확인하였던 <IMF 노사협상> 공트를 통해 성우하이텍의 과

콩트, 라디오 사연으로 만나 본 미래의 자신에게 쓴 편지, 웃음을 유발한 재기발랄한 CF 등 4박 5일간의 노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다양한 콘셉트의 열정적인 무대가 박수를 받았다.



거를 선보였다. '1986년 성우인 위로의 밤', '1988년 성우 금속 양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 당시의 사진을 기발하게 재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콩트 속 능청스러운 연기에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성우의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2019년 현재의 성우하이텍을 보여주는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좋은 반응을 끌어내었다. 탐사보도 콘셉트에 따라 성우하이텍을 둘러싼 의혹을 재기한 영상은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진 직장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성우하이텍의 노력을 반전으로 보여주며 박수를 받았다. 유행어인 "그런데 말입니다"로 관객들의 집중력을 환시킨 것이 킬링 포인트.



성우의 미래

<성우 Tube> 및 <뉴스>: 발전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당당히 리드하게 되는 미래의 성우하이텍은 YouTube를 차용한 <성우Tube>와 <뉴스>를 통해 보여주었다. 성우하이텍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미래 자동차' 소식, '자이언트와 스폰서 체결' 소식 등 뉴스 꼭지를 통해 희망 가득한 미래를 담아낸 한편, <성우 Tube>를 통하여 사회공헌 활동과 직원 친화적 복지제도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면접 상황을 담은 콩트, 라디오 사연으로 만나 본 미래의 자신에게 쓴 편지, 웃음을 유발한 재기발랄한 CF 등 4박 5일간의 노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다양한 콘셉트의 열정적인 무대가 박수를 받았다. 성우하이텍에 좋은 기운을 불러 모으





고 새 바람을 일으킬 신입사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발표가 끝난 강당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이날 발표회의 하이라이트인 사가 제창. 교육기간 내내 입에 달고 살았던 성우하이텍 사가가 신입사원 특유의 패기와 재치를 담은 신나는 멜로디로 재탄생되었다. 139명이 마음을 모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넓은 강당을 꽉 채우는 광경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졌다.



2019년 성우하이텍 신입사원들,
더 높게, 더 낮게, 더 빠르게! 끝없이 비상하라, 멀리!



MINI INTERVIEW 교육에 참가한 소감과 각오 한마디



성 한 규 (재경2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팀워크 및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신입사원이지만 열정과 패기, 성실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직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 미 나 (생산기술2팀)

이전에 차체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성우하이텍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회사 내에서 여자직원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몫을 훌륭히 해내는 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2회 가라쿠리 경진대회 전사가 개선활동 의지를 공유하다

11월 30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제1회 가라쿠리 경진대회 수상자 시상 및 제2회 가라쿠리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2회에는 특히 해외사업장도 화상으로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1회에 이어 2회 대회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선보였으며, 차후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가라쿠리 개선을 기대하게 하였다.



본격적인 2회 가라쿠리 경진대회 발표에 앞서 1회 대회의 수상자들이 무대로 올랐다. 1회 대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들 수상자는 생산성 제고와 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의 상황을 애정으로 지켜보고 고민함으로써 가라쿠리 개선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상금도 수여하였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경진대회에서 눈에 띄는 이슈는 단연 해외 사업장의 참여였다. 1회 때 국내 사업장에 한정하여 대회를 진행한 데 반해 2회 대회에는 무석, 북경, 창주, 인도, 멕시코 등 해외 사업장에서도 참가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를 합하여 모두 881건의 가라쿠리 아이디어가 집계되었다. 해외 사업장의 참가는 단순히 대회 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혁신기업의 경우 핵심 비전과 가치를 모든 임직원이 공유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제2회 가라쿠리 경진대회는 혁신적인 개선활동 의지를 국내 사업장은 물론 해외 사업장의 임직원이 공유한 유의미한 기회였다.

참가한 성우인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화상 연결을 통해 국내외 모든 발표를 지켜본 이명근 회장은 각 건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해당 아이디어에 대하여 강평하는 한편, 적극적인 의지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쓴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2년째 운영 중이다 보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편하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어준 직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법인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보다는 질적으로 더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회째 대회를 진행하며 자리를 잡은 만큼 이명근 회장이 강조한 부분은 아이디어의 질적 성장이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에는 단순 개선 아이디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혁신적인 개선활동 의지를 국내외 사업장의 임직원이 공유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다음을 기약해본다.



힘들여 들어 올리던 것을...
!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해외사업장도 화상 회의로 함께했어요~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 중간발표회

‘도전’을 이어가며 혁신의 역사를 세우다

현실화된 자율주행차, 중국의 성장 등 기업 환경 및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다. 도전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성우하이텍은 지난해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를 출범함으로써 도전을 선택했다. 6개월 과정으로 마무리된 1기에 이어 2기를 출범한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도전을 넘어 혁신을 바라본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악화일로 달릴 수도 있다. 1997년의 IMF 경제 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상황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 당시 중국의 무차별 보복으로 국내 한 대기업은 한 달 만에 2500억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었고, 중국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던 사업체는 강제로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자동차 불매운동, 중국 관광객의 급속한 하락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듯했지만 2019년 경제 전망 역시 그다지 밝지 못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 발생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느 때고 바뀔 수 있고, 기업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느 때고 바뀔 수 있고,
기업은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불안한 환경을 타파할 대책,
기업이 확실하게 성장할 방법은 있다.
기업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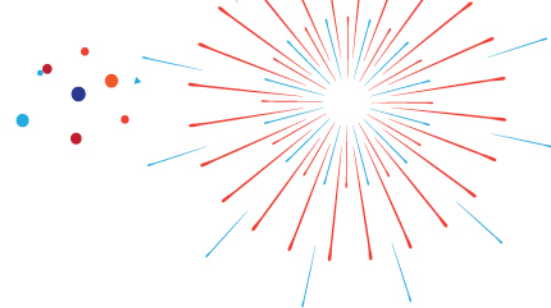


은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불안한 환경을 타파할 대비책, 기업이 확실하게 성장할 방법이 있다. 기업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시장의 한국산 자동차 불매 움직임, 코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성우하이텍은 도전을 택하였다. 2018년 출범한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가 그것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선진기업 현장 방문, 고유의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혁신 역량을 키우고 '강하고 유연한 제조 현장 실현'에 나섰다. 잔뼈 굵은 베테랑들의 업무를 중단한 채 교육에 매진하게 한 것은 회사 입장에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생전처음 해보는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하는 조·반장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도전이었다.

6개월간 진행된 1기 과정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무사히 과정을 마쳤으며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 해결하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1일에는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 출범을 알렸다. 단발성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기로 한 것. 성우혁신사관학교가 그 이름대로 성우하이텍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2기 출범으로부터 3개월 여 흐른 12월 27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중간 발표회가 열렸다. 2기생들 전원은 총 3개조로 나누어 각각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임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조마다 선정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선정 이유, 현황, 문제점 분석, 해결 방안, 개선 결과를 소개하였다. 도전을 넘어 성우하이텍의 혁신을 이끌 새 역사로 자리매김한 성우혁신사관학교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 🚀



도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더 빛날 미래를 그린다

성우하이텍 42년 역사는 도전의 기록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 과감한 결단으로 신사업에 뛰어들었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계무대에 진출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이제 성큼 다가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 여정에는 지난 42년 역사가 증명해온 '도전정신' 함께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초석이 된 해외 진출

제품의 완성도와 기술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 성우하이텍은 1994년 10월 기술연구소 설립 인가 및 이듬해 8월 아산성우하이텍 설립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였다. 획기적 전기가 다시 찾아온 것은 1996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의 첸나이에 생산법인을 세우기로 하며 해외공장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른바 '해외 동반 진출'의 계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인도에 진출한 자동차업체가 없어 성공 여부 역시 불투명했지만 성우하이텍은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도전을 택했다.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력이라면 세계 시장의 높은 벽도 넘을 수 있다는 자심감이 필요하던 시기, 인도 공장을 본격 가동하여 글로벌 시장에 발을 들였다.



1977-1989

1990-1999



성우의 새 미래를 연 과감한 결단

1977년 문을 연 성우금속공업사(성우하이텍의 전신)는 주로 주방 기구, 농기구,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던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였다. 전자산업과 중화학 공업의 발전으로 정밀가공용 공작기계가 도입되어 프레스 금형과 플라스틱 금형이 생산되기 시작하던 당시, 한창 호황을 누리던 성우금속은 1981년 법인 전환 후 1983년 현대자동차 스텔라의 물딩을 개발·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익성 종던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차체'라는 단일 아이টে에 주력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1989년께였다. 성우금속은 점점 규모를 키워 부산 기장의 정관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공장 이전 후 현대·기아자동차의 본격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성우하이텍만의 자체기술 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차체 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창조적 신기술로 글로벌 성장을 준비하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혁신적 결단과
심 없는 기술 개발로 역사를 만들어온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의 42년은 노사가
함께 이뤄낸 땀과 열정의 역사였다.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해온 노사는 서로 신뢰하는
전통을 만들어내었고,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노동부, 2001)과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201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본상 수상(GWP KOREA)(2013),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대기업)으로 선정(2014)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2019년
성우하이텍은 '창조적 신기술'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글로벌 무대의 선봉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바, 42년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왔듯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 

2000-2009

2010-현재



내실을 탄탄히 다져준 기술 개발

2000년 들어 상호를 '성우하이텍'으로 변경하고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억 불
수출탑'을 달성했고,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한국을 이끄는 200대 기업'에 선정되는
영광을 맞이하였다. 차체업계로서는 최초로 '품질5스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도 이 시기에 달성하였다. 당시 성우하이텍이 취득한
특허는 국내외 142건(해외 11건)에 달했는데, 부산에서 10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한 것은 성우하이텍이 유일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HRD 인증(2009.09)은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한 성과였다. 성우하이텍은 내실을 단단히 다져준
기술개발을 원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행복' 성우하이텍 직장어린이집

지난 2017년 3월 개원한 성우하이텍 직장어린이집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이미선 원장과 학부모,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곳. 오늘도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성우하이텍 직장어린이집을 찾았다.



이미선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들



아동들의 행복과 권익 존중을 목표로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의 교육방침에 따라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의 권익 존중을 보육의 첫째 목표로 삼고 있다. 교구 관리에 신경 쓰고 먹거리를 꼼꼼히 챙기는 것부터 매일 아침 교사 지침 낭독과 선서를 통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것까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한다. 매년 학부모를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그 노력 중 하나이다. 개원 원년에는 영아반 아동이 많았던 만큼 영아용 그림책 보는 법에 대해 교육했고, 지난해에는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였다. 올해 역시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성우하이텍 직장어린이집의 모든 프로그램은 아동의 행복 및 권익 존중에 맞추어져 있다.

"이 나이대의 아동들에게는 인성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도 아이들을 '정서적인 금수저'로 키우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전기술팀
조국래 과장·이수진 부부



바른 먹거리, 안전한 시설, 존중받는 아이들

성우하이텍 직장어린이집은 학생 수당 선생님 비율이 국가 지정 기준보다 더 충족하다. 아이들 케어 부분에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아동 한 명당 쓸 수 있는 공간이 넓고, 놀이교구도 다양하며 하나하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먹거리 부분 역시 직접 장을 본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믿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내 아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교사들과 자주 대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며 아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처음에는 민호 등·하원을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불편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며 더 가까워지고 아이 보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이유정 교사 (만 2세, 토끼반)
최혜진 교사 (만 1세, 나비반)



오늘 하루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원아가 늘면서 지난해 2월부터는 교사 두 분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의 교육 방침을 충실히 따르며, 성우하이텍 직장어린이집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행복하게 지내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겠다는 것이 새해를 맞이한 이들의 포부다.

“올해부터는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능숙한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린이집인 만큼,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ES 2019 와 자동차

<CES 2019>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가전협회가 주관하여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제품 전시회로서,
최근 몇 년간 화두는 단연 자동차였다.



©ETC-USC, 2019



<CES 2019>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화제로 떠올랐다. 자동차 안에서 탑승객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글로벌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다.



CES 2019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거대담론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화두로 삼았다면, <CES 2019>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화제로 떠올랐다. 자동차 안에서 탑승객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글로벌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은 완성 단계에 있고, 그 너머의 기술에 대한 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시스템’을 선보였다. R.E.A.D.는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해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분노, 졸음 등은 물론 심장마비 같은 위급상황도 인식하여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대모비스는 가상공간 터치기술을 공개했다.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을 터치 식으로 누를 필요가 없이 허공에서 바로 조작 가능하며, 자율주행 시 영화 감상도 가능하게 한다. 또 전후좌우에 장착된 램프를 통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소통하는 엠비전(MVision)을 시연하여 주목을 받았다.

BMW는 ‘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를 선보였다. 육성으로 차량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각종 기능을 말로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당일의 일정을 알려주고, 화상회의, 쇼핑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조작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한다.

그 밖에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포드, 도요타, 하만, 인텔 등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IT 업체까지 자율주행을 전제로 사람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앞다투어 첨단 기술을 소개했다.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시선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와 5를 넘어 그 이상의 세상을 그리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 -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 0단계 - 자율주행 기능 없는 일반차량
- 1단계 -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 보조기능
- 2단계 - 부분자율주행, 운전자의 상시 감독 필요
- 3단계 - 조건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기능 제어, 탑승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신호
- 4단계 - 고도 자율주행, 주변 환경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 불필요
- 5단계 -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 주행차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음 따뜻한 우리 성우인들은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장애인을 도와줍니다.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낍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공식이 어느새 우리 뇌리에 박힌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자주 가는 공공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마크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에 반듯하게 앉은
자세에 팔걸이에 팔은 편안하게 올라가
있고, 발끝은 공중을 향해 있어 마치 휴양
지 해변에서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을 맞
으며 느긋하게 쉬는 듯한 자세입니다. 더
할 나위 없이 편안한 자세에 손잡이를 본
다면 누구라도 밀어주지 않고는 못 배길
듯한 그 마크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국제표준 마크라고 하니 괜히 국
제기구는 아닌가 봅니다.



2009년 가을, 뉴욕시에서 누군가가 이 신
성한(?) 장애인 마크에 낙서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 낙서의 모양이 어딘가 묘합
니다. 휠체어에 반듯하게 앉아 있던 상체
는 앞을 향하여 45도 각도로 숙였고, 팔걸
이 있던 팔은 뒤편으로, 공중을 향해 있던
발끝은 지면을 향해 있습니다. 바퀴에 그
려진 대각선은 더욱 역동적인 자세에 화
룡점정입니다. 이 낙서를 본 순간, 뉴욕시
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공공기물 파손 행위라고 생각하며 얼굴
을 찌푸렸고, ISO는 '장애인을 모두 운동
선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불편한 심
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곳곳
에 이 낙서가 번져갔고 심지어 대놓고 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
의 생각은 ISO와 달랐나 봅니다.



이 낙서를 처음 한 사람은 디자이너 사라
헨드렌과 고든 대학의 교수 글레니였습니
다. 그들의 눈에 기존 장애인 마크는 장애
인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듯한 사람, 딱딱하고 수동적인 사람
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고안
한 장애인 마크는 익숙한 관습에 대한 대
담한 도전이었고, 고정관념에 대한 획기
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마크는 많은 이
들의 지지를 얻어 2014년 7월 25일, 뉴욕
시는 46년 동안 유지되었던 ISO의 장애
인 마크를 사라 헨드렌이 만든 장애인 마
크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18일, 성우하이텍은 김주희 강사님
을 모시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장애인 누구나 갖고 있는 하
나의 특성일 뿐이라는 사실과 그 동안 갖
고 있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잘못
된 에티켓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
습니다. 우리 성우하이텍은 장애인 직원
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편
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인다”를 모토로
장애인들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를 만나다

“창조적 신기술”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종명 반장
지그보전반(아산)

Q.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올해 3월이면 입사 30년을 맞이합니다. 의미 있는 해를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지금껏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해 열심히 해온 것을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수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술선 수범하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Q.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함께 일하는 반원들에게 많이 고맙습니다. 설비 보전이 제대로 안 되면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일할 때만큼은 예민하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끔 싫은 소리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저를 잘 따라주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 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 이외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종에 영구자석 마그네틱 행거를 이용하여 H/W 자동화 라인을 구성한 것과 BD-FRT BPR ROLL SPOT LINE 로딩, 언로딩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 라인에 적용하기까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만큼 많은 테스트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생산성 향상과 소인화 개선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회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전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기이고, 회장님께서 신년사를 통해 '창조적 신기술'을 강조하기도 하셨지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후배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성우하이텍을 만들어갈 후배 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정훈 과장

생산기술1팀

Q.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이 상은 저 혼자 잘해서 받았다기보다 그동안 제게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까지 않으신 선배님,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후배님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Q.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생산기술 파트에서는 신기술을 많이 접하는 만큼 그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업무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제가 마음을 잡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도와주신 박기덕 팀장님(생산기술1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는 벌써 5개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박명호 대리(생산기술1팀)도 특히 고마운 동료입니다. 사근사근하게 챙기는 성격이 아닌데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Q. 성우하이텍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입사 4년차이던 2013년 말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맡았던 생산라인에 작업자가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했는데, 현장의 작업자께서 제게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 대리가 라인을 잘 만들어주어서 일을 편하게 했어. 앞으로도 김 대리가 만들어준 라인에서 일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하는데 있어 늘 새기는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시

는 현장 작업자께서 제가 설계한 라인에 만족한다는 것은 아주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라인을 구축했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요.

Q. 올해 목표가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는 2017년부터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신기술에 대한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에게 신경을 조금 더 써주고 싶어요. 아내와 딸아이에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올해는 더 자주, 고맙다고 표현해야겠습니다. 🌈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한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2019년 KBS 1TV <인간극장>의 첫 주인공은
'한국 철학계의 대부', '시대의 현자'로 불리는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였다.
올해 100세를 맞이한 그는 여전한 현역이다.
아직도 곳곳에서 강의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며, 책도 집필한다.
100세의 현역,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노년은 언제부터일까. 보통은 직장에서 퇴직하는 60세~65세 정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김형석 교수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김태길 교수는 76세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펴냈고, 안병욱 교수는 89세까지는 일을 계속했다. 김형석 교수 역시 저서 『백 년을 살아보니』에서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인정하였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와 한결 깊어진 나이에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는 방송을 통해 100세 현역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대학 교수를 정년퇴임할 때쯤부터 바깥 사회로 나온 후 15년 정도의 시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내 나이로 보면 60세에서 80세까지죠. 일도 많이 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기도 한 시기입니다.”

김형석 교수와 같은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90세가 넘는 나이에 매주 전국을 누비며 <전국노래자랑>을 진행 중인 송해 선생이 그럴 것이고, 최고령 현역 의사인 93세의 한원주 원장이 또한 그렇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건강관리가 첫째이다. 일을 하고 있어서 건강을 유지한

더욱 찬란히 빛날
네 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다고 말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남다르다. 또 하나, 그들에게는 '정년'이란 의미가 없다. 스스로가 현역을 살아가기에 한정을 두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의 삶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들, 백발의 보디빌더도, 70세의 비보이도 가능한 이유이다.

지난 12월 27일 이상채 기장(금형반), 정용곤 기장(가공2반), 강인재 기장(조립2반), 최희곤 조장(지사 조립계)이 정년퇴임을 맞았다. 모두 30년 가까이 성우하이텍에서 일하며 오늘의 성우하이텍을 이루는 데 기여해온 분들이다.

네 분의 퇴직자에게 젊은 시절을 보낸 성우하이텍의 눈부신 오늘이 뿌듯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어질 인생 2막에서 성우하이텍을 지금의 기업으로 키워내었듯 또 다른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더욱 찬란히 빛날 네 분의 앞날을 응원한다. 

Unique SUNGWOO

빛을 치며 '나'를 새기는 시간

글로벌개발팀 정창영 부장

퇴근 후 10분. 정창영 부장은 그날 떠올린 글귀를 적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빛을 쬔 손끝에 집중하여 마음속으로 뜻을 새기며 한 자 한 자 적어내는 이 시간은
정창영 부장의 하루를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르침을
읽고 넘기는 것과 직접 적어보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큼니다.
스스로 적어봄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원작자의 생각에
한발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새김으로써 배움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고요.”



선현의 잠언을 새기며 스스로 깊어지는 과정

정창영 부장이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것은 인도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2008년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별한 취미를 가지기 힘들었던 주재원 시절, 우연히 본 도올 김용옥 선생의 노자(老子) 동영상 강의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이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노자, 공자(孔子) 등 선현의 사상과 그를 담은 고전(古典)에 관심이 생겼다. 이들과 가까워지는 데 첫걸음이 되는 한자부터 써보자 마음을 먹고 노트에 『천자문(千字文)』을 적는 것부터 시작했다.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자를 접할 기회가 많아 시작한 순조로웠다.

처음에는 글씨를 멋지게 적는 데 더 신경을 썼다. 소위 ‘굿는 맛’이라 부르는, 붓을 들고 획을 칠 때의 그 느낌이 좋았고 그럴 듯하게 나오는 글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일수록 생각은 변했다. 이제는 글자 자체보다는 그 글이 지닌 뜻, 원작자의 의도와 생각에 공감하고 동화되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르침을 읽고 넘기는 것과 직접 적어보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큼니다. 스스로 적어봄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원작자의 생각에 한발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새김으로써 배움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고요.”

한글의 많은 부분이 한자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언어 공부도 훨씬더러 선현의 생각을 마주하며 몰랐던 이치를 깨달아가는 재미도 크다. 가령,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명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부모, 특히 어머니의 큰 희생과 은혜에 대해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한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차분히 적는 과정을 통해 성격이 조금 차분해졌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누는 기쁨을 알다

정창영 부장과 인연을 맺은 성우인이라면 진급, 결혼, 돌잔치 등에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액자나 부채 등에 글귀를 적어 개인적 대소사가 있는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캘리그래피를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이다. 담기는 내용은 제각각이다. 결혼을 앞둔 직원에게는 부부관계에 관한 잠언을, 아이의 돌을 맞은 직원이라면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글귀를 선택하는 식이다. 특별한 선물을 받아든 반응 또한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뜻을 모르는 낯선 한자에 당황하기도 한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직원들의 경우라면 주로 당황하는 쪽인데, 이럴 때에는 한자가 담은 뜻에 대해 가볍게 대화를 나눌 기회도 갖는다. 종종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부채 선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반응이 좋다.

주로 한자를 많이 쓰지만 캘리그래피 작품은 한자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한글 캘리그래피는 또 그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이 정창영 부장의 설명이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직원들에게는 헤민 스님, 법정 스님 등의 명언을 적어 선물한다. 한자보다는 가슴에 더 가 닿지 않을까 싶어 선택한 것인데, 실제로도 한자 작품을 선물할 때보다 더 반응이 좋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는 예전의 유행가 가사를 선물하여 오래된 추억을 되새길 기회를 갖기도 한다.



“취미가 되어도 좋고,
공부가 되어도 좋습니다.
몰입할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하세요”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면서
가늘고 넓어진다.

봄이 가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와 같이 순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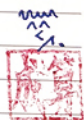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호흡이며 율동이다.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오는 세월을 잘 쓸 줄 아는 삶의 지혜(知慧)를

터득하는 한 해 되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생살 것 같은 새해 인사합니다>



능구(能久), 꾸준함의 힘을 믿으세요

10년 정도 캘리그래피를 써오며 정창영 부장은 수많은 선현들의 잠언을 가슴에 새겨왔다. 16년차 성우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며, 또 공부를 통해 가장 깊이 새겨진 말은 『중용(中庸)』에 등장하는 능구(能久)이다. 공자의 제자 중 실천력이 가장 뛰어났던 안희와 관련 있는 말로, 공자가 '안희'를 가리켜 "나는 어떤 결심을 하지만 달이 바뀌면 마음도 변하는데, 안희는 한 번 무언가를 결심하면 끝까지 지켜 간다"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꾸준함의 힘을 내포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어떤 분야든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 통달하게 된다. 외국어도 그렇고, 정창영 부장이 10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 한자공부도 그렇다. 정창영 부장은 능구를 빌려, 성우인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매년 큰 목표를 세웠다가 작심삼일(作心三日)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올해는 꾸준히 할 무엇인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취미가 되어도 좋고, 공부가 되어도 좋습니다. 몰입할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하다 보면 그 분야에 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정창영 부장은 한문이든 국문이든 스스로는 작품이라 평가기도 쑥스럽다며 웃어 보였다. 명인(名人)의 솜씨나 달필(達筆)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다. 아직은 걸음마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자신만의 글을 적어보는 것은 정창영 부장의 개인적인 목표이다.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정창영 부장의 특별한 취미 활동은 계속되지 않을까?

7전 8기의 마음으로 도전은 계속된다!

성우하이텍 볼링팀

지난 1월 15일 양산 자이언트볼링장에서

'2019 펠리아배 전국볼링대회'

1분기 직장클럽전 결승 경기가 열렸다.

결승에 오른 네 팀의 선수들은 프로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며 현장을 후끈하게 달구었다.





한 팀이라는 끈끈함

김민철 팀장(코일센타)과 박대근 기사(코일가공반)에 이어 2017년 팀에 합류한 여상원 기장(서창공장 조립1반)까지. 어느새 3년째 팀을 이루고 세 사람 모두 볼링 경력이 짧지 않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볼링이었는데 본격적으로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펠리아배 직장전은 3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되는 경기이어서 더 특별하다. 한 경기당 자신이 투구할 기회는 많아 네 번. 각자의 투구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 혹여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동료가 만회해줄 것이라는 믿음, 다음 투구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 서로를 향한 파이팅이 상호작용을 하여 팀원 전체가 고루 좋은 성적을 내어야 한다.

전체 경기를 운영하며 세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합을 맞추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협동심과 단결력이 길러지니, 팀원 간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전의 매력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고 분기별로 열리는 직장전의 열기도 뜨겁다.

회사 간 치열한 응원전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이날, 세 사람은 2014년 직장클럽전 준우승, 2017년 직장클럽전 3위에 이어 세 번째 우승 도전에 나섰다.

3년 정도 손발을 맞추다 보니 팀 전력은 어느 때보다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결승 경기 이틀 전에 열린 준결승 경기에서 4팀 중 1위로 예선을 통과하며 기대도 컸다. 이번에는야말로 우승을 손에 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전열을 다진 이날, 각자가 스트라이크를 치고 스페어 처리도 나쁘지 않았지만 생각지 못한 복병이 등장했다. 앞선 3-4위전과 2-3위전 경기에서 내리 승리하며 분위기를 탄 상대 팀의 전력이 탄탄해졌던 것. 승리의 여신은 결국 상대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준결승 경기에서 두 팀 간 점수 차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까지 오니 징크스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세 번 도전해서 안 되었으니, 다시 도전해야죠. 첫 우승이 이렇게 쉽지 않은 만큼, 우승하게 되면 그 기쁨 역시 배로 크지 않을까요?”

볼링 경기 중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축하 음악이 울린다. 선수를 축하하고 응원단을 복돋우는 그 신명나는 음악 소리를 다음 도전에서는 더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볼링공이 핀을 시원하게 쓰러트리듯 우승 징크스를 시원하게 깨버리기를 응원한다. 🎳

우승 징크스?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20회 부산마라톤대회

마라토너들의 대물결, 낙동강 하구역을 따라 또 하나의 강줄기 되다

부산의 달리기 큰 잔치,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제20회 부산마라톤대회'가 11월 11일 진행되었다.
출발지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눈빛에
진지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울속도 강변을 흐르는
힘찬 달리기의 대물결

300여명의 동호인과 일반인 참가자 8,000여명이
다대포 해수욕장과 울속도를 아우르며 달린다.
다대포 바다와 낙동강 하구가 만나는 기수역을
즐기며 달릴 수 있는 부산 유일의 풀코스 '제20회
부산마라톤대회'가 대규모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이 되어 장관을 연출하였다.
이번 대회는 쾌청한 하늘이 멋진 풍경을 그려낸
가운데 달리는 호사를 누렸지만 쌀쌀한 바람은
참가자들을 움츠리게도 했다. 하지만 열정이
추위를 쫓는다. 출발 전 대회 사회자의 진행 가운데
도종복 부사장이 환한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응원과 감사의 인사에 몸을 풀던 참가자들은
환호로 답했다. 참가한 성우인들은 많은 참가자
속에 묻혀 있어 쉽게 보이지 않았는데 출발 신호와
함께 눈빛을 반짝이며 힘차게 뒤통박질을 하자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구별해내듯,
눈에 들어온다.



다대포에서 출발하여 강변로를 따라 달리는 이 대회 코스는 평탄하고 시원하다. 아름다운 바다와 강이 어우러져 어종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기수역 일대이다. 풍성함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부산마라톤대회는 이곳의 풍성함을 닮기라도 하듯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모여 풍성한 대회를 완성하였다. 풀코스와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다부진 모습과 달리 대다수가 참가하는 10km코스 참가자들에게서는 설렘과 긴장감이 엿보였다. 등수를 가리는 경기인 만큼 가족과 친지 등 응원단의 환호도 열렬했다. 반면에 등수는 전혀 상관치 않는 듯 가족 구성원과 여학생 무리들은 걷고 뛰기를 반복하다가 아예 작정한 듯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며 대회의 다른 면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풀코스에는 남녀 부문에서 모두 특별한 기록이 나왔다. 역대 최다 우승자와 첫 출전 우승자가 나온 것이다. 다음 대회 때는 성우인들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본다.



뜨거운 응원 열기



준비운동도 즐겁게



음악영화 불패의 시장,

흥의 민족 한국인이 사랑한 음악영화

인구 5천만 명가량의 크지 않은 시장이지만 세계 영화계에서 한국이 가지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음악영화 제작자라면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다. 본국의 흥행 수입을 뛰어넘는 기록이 발생하는가 하면 다른 시장에서 외면 받던 작품도 곧잘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는 하는, 그야말로 오묘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IMDb





본국을 능가한 흥행 성적, 한국에 주목하다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은 한국인이 특히 사랑한 음악영화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작품이다. 스타가 된 연인과 이별 후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계속 해나가는 싱어송 라이터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분)가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으며 가족과도 절그러운 관계에 놓인 음반프로듀서 댄(마크 러팔로분)을 만나 진심으로 바라던 음악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키이라 나이틀리와 마크 러팔로, 인기 그룹 '마룬 5'의 보컬 애덤 리바인 등 쟁쟁한 출연진들이 포진했지만 미국에서 그다지 눈에 쏠 만한 흥행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무려 2600만 달러(약 292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본국인 북미 흥행 수입(1600만 달러·한화 약 182억 원)을 한참이나 앞질렀다. 이 영화의 어떤 점이 한국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음악을 매개로 꿈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답게 영화는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다. 이 음악들이 바로 영화의 가장 큰 무기였다. 특히 극중 그레타가 작곡한 '로스트 스타즈(Lost Stars)'는 키이라 나이틀리가 부른 서정적인 버전과 애덤 리바인의 락 버전이 모두 사랑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전작 <원스>로 한국 관객에게 큰 인상을 남긴 존 카니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도 주효했다. 연인 및 가족 간의 관계 회복, 실패자로 여겨지는 주인공들이 재기하는 희망적인 스토리는 '힐링 영화'로서 이 영화의 매력을 배가시켰다.

흥행 정보 전 세계 수익 - 약 6300만 달러
한국 수익 - 약 2,600만 달러(전 세계 수익 1위)

뮤지컬 영화, 흥행 불패는 계속된다

맘마미아, 위대한 쇼맨, 레미제라블

음악영화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애정은 뮤지컬 영화의 성공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그룹 아바의 히트곡들로 만든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 <맘마미아>는 2008년 개봉 당시 460만 명에 달하는 관객 수를 기록했다. '댄싱 퀸(Dancing Queen)', '맘마미아(Mamma Mia!)', '슈퍼 트루퍼(Super Trouper)' 등 아바의 명곡들은 관객들의 흥을 돋우었고, 이를 멋들어서 소화해낸 배우들의 열연은 감동을 자아내었다. 1편의 성공은 10년 후 개봉한 2편으로까지 이어져 한국 관객들의 여전한 사랑을 확인했다.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역시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주제가상을 수상한 O.S.T '디스 이즈 미(This Is Me)'를 필두로 수많은 명곡을 히트시켰다. 2012년 연말 개봉한 <레미제라블>은 한국인의 뮤지컬 영화 사랑의 정점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만하다.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영화 내용이 맞아떨어지며 593만 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특히 이 영화는 촬영장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며 라이브로 부른 노래를 직접 영화에 삽입하여 화제가 되었다. 혁명의 아침을 준비하는 서로 다른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간 '원 데이 모어(One day more)', 붉은 깃발이 흔들리는 가운데 퍼지는 '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가 수많은 관객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였다.

흥행 정보 <레미제라블>
약 4억4천만 달러 중 약 3800만 달러(해외 수익 3위)





싱어롱 상영, 만전 흥행을 이끈다

보헤미안 랍소디

1.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영화나 뮤지컬, 콘서트 같은 작품에서 나오는 노래를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
2. 1985년 7월 영국 런던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이뤄진 대규모 공연으로, 에티오피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퀸을 비롯해 폴 매카트니, 데이빗 보위, 스팅, 엘튼 존, 마돈나 등 초호화 라인업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퀸(Queen)과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상상한 사람은 없었다. 누적관객 993만 명(2월 11일 현재). 한국에서 개봉한 음악영화들의 기록을 하나씩 갈아치우더니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랭크되었다. <보헤미안 랍소디>의 성공은 개봉 3주차에 시작한 '싱어롱sing-along' 상영이 이끌었다. 영화의 마지막 20분을 장식한 1985년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² 신이 주효했다.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 '위 윌 락 유(We will rock you)', '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 같은 퀸의 명곡들로 채워지는 이 신은 가히 클라이막스라 할 만하다. 관객들은 마치 1985년 라이브 에이드 현장에 있는 듯 서로 어깨를 걸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따라 부르며 프레디 머큐리와 퀸을 연호했다. 그저 '보기만' 하는 영화가 아니라, 함께 노래하고 응원하며 즐기는 영화. 흥의 민족이라 일컫는 대한민국 관객의 특성을 파고든 이 색다른 마케팅의 성공으로 50번 이상 극장을 찾는 팬들까지 등장했다. 싱어롱 상영을 바탕으로 <보헤미안 랍소디>는 개봉 4주차, 7주차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영화의 화제성에 힘입어 MBC는 1985년 당시 수입한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30여 년 만에 재방송했고, KBS는 프레디 머큐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예능 프로그램과 연말 시상식, 음악 프로그램에서 각종 패러디와 퀸의 음악이 넘쳐났다. 영화 성공의 열풍을 타고 퀸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

흥행 정보 약 8억5천만 달러 중 7600만 달러(해외 수익 2위)



소두방에서 오시리아까지 부산 기장 힐링여행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가 기장의 동해안을 따스한 빛으로 물들인다.
해변의 기암괴석 사이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갈매기의 비상과 함께 명화를 만든다.
삼국시대의 영화가 기장의 미래로 이어진다.
동부산의 떠오르는 힐링 여행지. 기장을 알차게 즐겨보자.



Passion

진격의 P코스

10:00

정관박물관

11:00

실내 암벽등반 체험

12:00

점심 추천: 장안사계곡음식촌

13:00

장안사와 대나무 산책로

15:00

대룡마을

16:00

신평소공원

19:00

칠암함, 봉장어마을



소두방을 기억하는 정관박물관

‘소두방’은 솔뚜껑의 경상도 사투리다. 산세와 지형이 솔뚜껑 같다고 하여 소두방이라 불리던 마을이 바로 기장 정관이다. 신도시 조성사업 중에 유물이 출토되었다. 땅 속에서 잠자던 삼국시대를 깨운 것이다. 이 유물들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이 정관박물관으로, 정관 가동유적이 중심이 된 전국 최초의 삼국시대 생활사박물관이다. 상설전시관은 마을 중심에서 떠난 옛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 ‘소두방의 기억’이라는 테마로 구성하였다. ‘소두방의 생활’ 전시관에서는 출토된 유물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생활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야외전시공원 ‘소두방의 마을’은 기장 청강, 대라리유적과 고촌유적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한 삼국시대의 마을을 재현하였다. 대형 제사 건물과 큰 살림집 등으로 보아 당시 이 지역은 신성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재현한 건물 실내로 들어가 볼 수도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짜릿한 모험, 클라이밍

짜릿한 모험은 여행의 백미. 스포츠 클라이밍은 전문적인 능력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정관에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성우하이텍 정관공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하이클라이밍'이다. 전문가의 교육과 일체의 장비까지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 홀드를 잡고 한발 한발 올라가 가장 높은 곳을 터치할 때의 짜릿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참고 별을쏘다 vol.11, 32~33p

하이클라이밍 부산시 기장군 정관을 공내길 654-168, 2동
051) 728-7170



예술이 된 '대룡마을'

부산의 서쪽에 감천문화마을이 있다면 동쪽에는 대룡마을이 있다.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조성한 이 마을 곳곳에서 예술 작품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다. 집에 붙은 명패조차 예술적이다. 감성적 풍광은 사진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 메모를 남기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무인카페도 어쩐지 이 마을과 어울린다. 마을 전체를 돌아도 행인조차 드물다 보니 방문객에게는 낯설고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약간의 긴장감 또한 여행의 맛 아니던가.

붕장어 마을 칠암항과 신평소 공원

칠암항은 1970년대부터 붕장어 집산지로 명성을 얻었다. '칠암붕장어마을'에는 기장군이 지정한 모범 음식점[생선회]이 7곳이나 된다. 매년 10월 말경 '칠암 붕장어 축제'가 개최되니 참고하자.

칠암항 제일의 포토존은 야구등대. 촬영 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짜지 않은 샘 '돌새미(돌샘·石泉)'에도 들러보면 좋다. 동쪽 바닷가와 신평소공원에서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7개의 윗바위와 윗판대를 각각 만날 수 있다. 신평소공원은 해송림과 해안길, 바위가 아우러져 가족과 커플의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카페촌이 있어 식사 후 디저트를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Romance

낭만의 R코스

10:00

아홉산숲길과 무인카페

12:00

점심 추천: 무인카페에서 도시락
혹은 철마한우촌

13:00

죽성 드림세트장

14:00

연화리 젓병등대(카페)

15:00

오랑대와 용궁사

16:00

시랑리(동암마을)와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19:00

국립부산과학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대변의 연화리와 멸치축제

작은 포구인 연화리는 부산과 인근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가깝고 바람 쐬기 좋아 자주 찾는 곳이다. 싱싱한 해산물과 전복죽 등이 유명하다. 아기자기한 이색 카페와 등대는 한번 찾은 사람들을 다시 찾게 한다. 몇몇의 카페는 창가의 뷰어를 통해 바다와 함께 젓병등대를 바라볼 수 있다. 젓병등대는 젓병 모양의 등대와 바닥에 매년 출산율을 기록해 놓은 이색 포토존이다.

연화리 마을 앞에는 작은 섬 죽도가 있다. 기장 8경의 하나다. 대나무가 자생하고 시원한 샘이 있었으며 특히 비 오는 밤에 댕댕의 떨어림과 빗소리가 문풍지와 함께 화음을 내면서 멋과 낭만을 전해주었다 한다. 지금은 사유지가 되어 들어갈 수 없어 아쉽다.

연화리 바로 옆 대변항에는 멸치와 미역 등을 파는 가게가 즐비하다.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면 대변항에 봄 멸치 떼가 돌아온다. 해 질 무렵 멸치 배가 들어오면 항구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이맘때 멸치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멸치털이를 보려는 구경꾼들과 멀리 떨어진 멸치를 줍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멸치를 낚아채가는 갈매기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3월 말부터 6월까지 멸치잡이 풍경이 계속된다. 멸치회, 구이, 찌개, 젓갈멸치 등 먹거리는 물론이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참고 **별을쏘다 vol.15, 44~49p**





철마의 아홉산숲과 무인카페

기장 하면 바다가 떠오르지만 숲도 빠지지 않는다. '아홉산숲'은 한 가문이 400년간 가꾸고, 지켜오는 곳이다. 곳곳에 맹종죽숲과 금강송, 해송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낸다. <군도>, <대호>, <협녀, 칼의 기억> 등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의 촬영지였다. 숲길을 돌아 다시 나갈라치면 '관미헌'이라는 60년 된 한옥을 만나게 된다. 아홉산의 나무로 못을 전혀 쓰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건축하였단다. 입장료가 있지만 아깝지 않다.

관미헌 입장료: 5천 원 / 입장 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문의: 051) 721-9183

죽성 드림세트장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동화 속 성 같은 성당이 보인다면, 죽성리의 드림성당이다. 기암괴석 절벽에 그림처럼 자리 잡은 이 서양식 단층 건물은 드라마 <드림>의 세트장으로 지어졌다가 지금은 갤러리로 이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핫한 포토 스팟이다. 근처의 황학대(黃鶴臺)는 기장 오대(機張五臺) 중의 하나로,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며 시상을 떠올리던 곳으로 전한다. 고산 윤선도가 유배생활 중에 견회요(遣懷謠)와 우후요(雨後謠) 등 주옥같은 시 여섯 수를 남겼다.

오랑대와 시랑리, 지금은 오시리아

오랑대(五郎臺)는 기장에 유배된 친구를 만나러 온 다섯 선비가 절경에 취해 술을 마시며 가무를 즐기고 시를 읊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시랑리 동암마을 남쪽 해동용궁사 옆쪽에서는 시랑대(侍郎臺)를 만날 수 있다. 예로부터 기장 제일의 명승지로 알려진 8경 중 하나다. 오색찬란한 비오리(기러기목 오리과), 큰 무리를 지으며 나는 가마우지 등도 볼 수 있다. 주변을 즐기며 산책하려면 동암마을에서 시작해 힐튼호텔 앞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자. '오시리아'는 오랑대와 시랑대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새 이름이다. 인근에는 국립부산과학관, 롯데프리미엄아울렛동부산점, 그리고 맛집과 카페들이 즐비해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지로 커나가고 있다. 🌈



사랑 듬뿍 담긴 성우덱 손맛 한번 보실래요?

‘김장’은 주부들의 가장 큰 1년 밥상농사라 불린다. 예전보다 양은 줄었다고 해도 겨울의 초입이면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한다. 모처럼 모인 식구들로 왁자한 분위기,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수육 냄새, 양념에 살짝 찍어 맛보는 알 짝 찬 배추의 고소함. 매년 겨울 성우인들 역시 이 살가운 풍경의 주인공이 된다.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는 ‘겨울애(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서다.

겨울비가 촉촉이 내린 12월의 초입.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성우인들 외에 지역의 봉사자들,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였다. 처음 보는 얼굴에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우리는 곧 그야말로 산처럼 쌓인 배추김치와 무김치를 대면했다. 고운 색을 내는 양념도 한가득이다. 이걸 대체 언제 다 할까 싶어 덜컥 걱정부터 앞서지만 사전 준비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벌써 7년째 해오는 행사인 만큼 진행자들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역할이 정해졌다. 늘어선 테이블 앞에서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사람들, 절여진 배추와 양념을 테이블로 배달해주는 사람들, 버무려진 배추를 옮겨 박스 단위로 포장하는 사람들. 어색함에 조용하던 테이블 주위가 어느새 시끌벅적하다. 여기저기서 배추와 양념 리필을 주문하는 소리, 난생처음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이주여성들에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봉사자들, 연약한 꽃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양념을 버무리는 이주여성들의 모습에 웃음도 터진다. 한참을 시끌시끌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산처럼





쌓였던 배추들도 어느새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내내 같은 자세로 서 있느라 허리도 빠근해지고 목 뒤도 딱딱하게 굳어온다. 그러다 문득 장내에 퍼진 구수한 냄새에 입맛이 동한다. 한쪽에서 끓이고 있던 수육이 알맞게 삶아졌다는 신호! 자고로 김장하는 날의 하이라이트 하면 수육이 아니던가. 양념장에 버무린 김치에 수육 한 점, 여기에 뜨끈한 어묵 국물까지 더해지니 반나절 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



이날 우리가 담근 김치는 무려 70박스(각 20kg) 분량. 작년에 비해 200kg 늘어난 양이라고 한다.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이웃 사랑을 조금 더 실현하고자 하는 '성우공동모금'의 의지를 담았다. 김장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치를 웅상지역 내 저소득 세대, 한부모 세대, 다문화가정 등 140가구에 전달하였다. 매달 급여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조성한 성우공동모금액이 이처럼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 오늘의 행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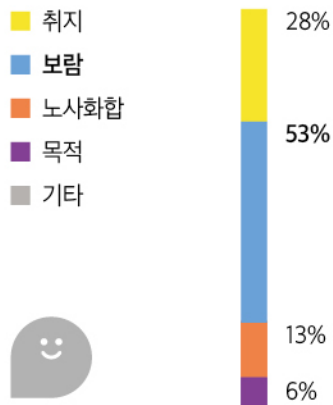


매년 겨울 진행하고 있는 김장나눔행사, 성우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을까?
성우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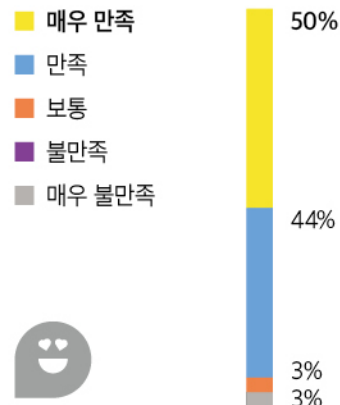
조사 기간 : 김장봉사 당일
조사 형태 : 설문지에 의한 답변

조사 대상 : 성우, 아산성우 김장나눔 봉사자
참여 인원 : 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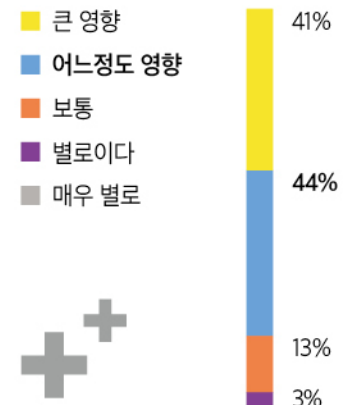
01 김장나눔행사를 하며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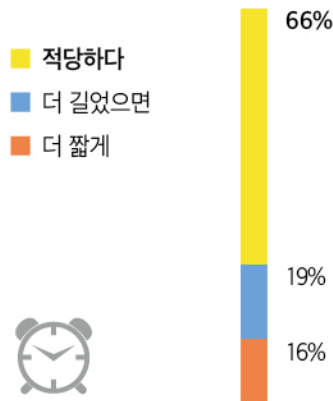
02 김장나눔행사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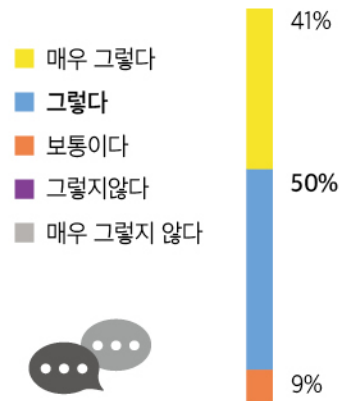
03 이 행사가 조직 활성화 및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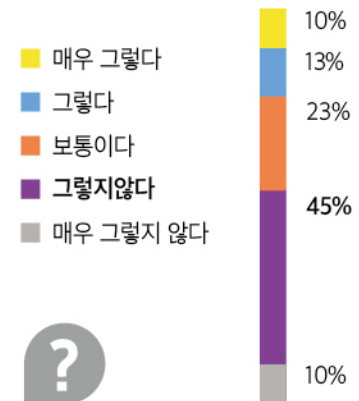
04 김장나눔행사 진행 시간은 적당한가요?



05 행사 진행 시 동료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06 행사에 전면적인 개편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한 성우인들의 소감 한마디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GOOD~

수육 짭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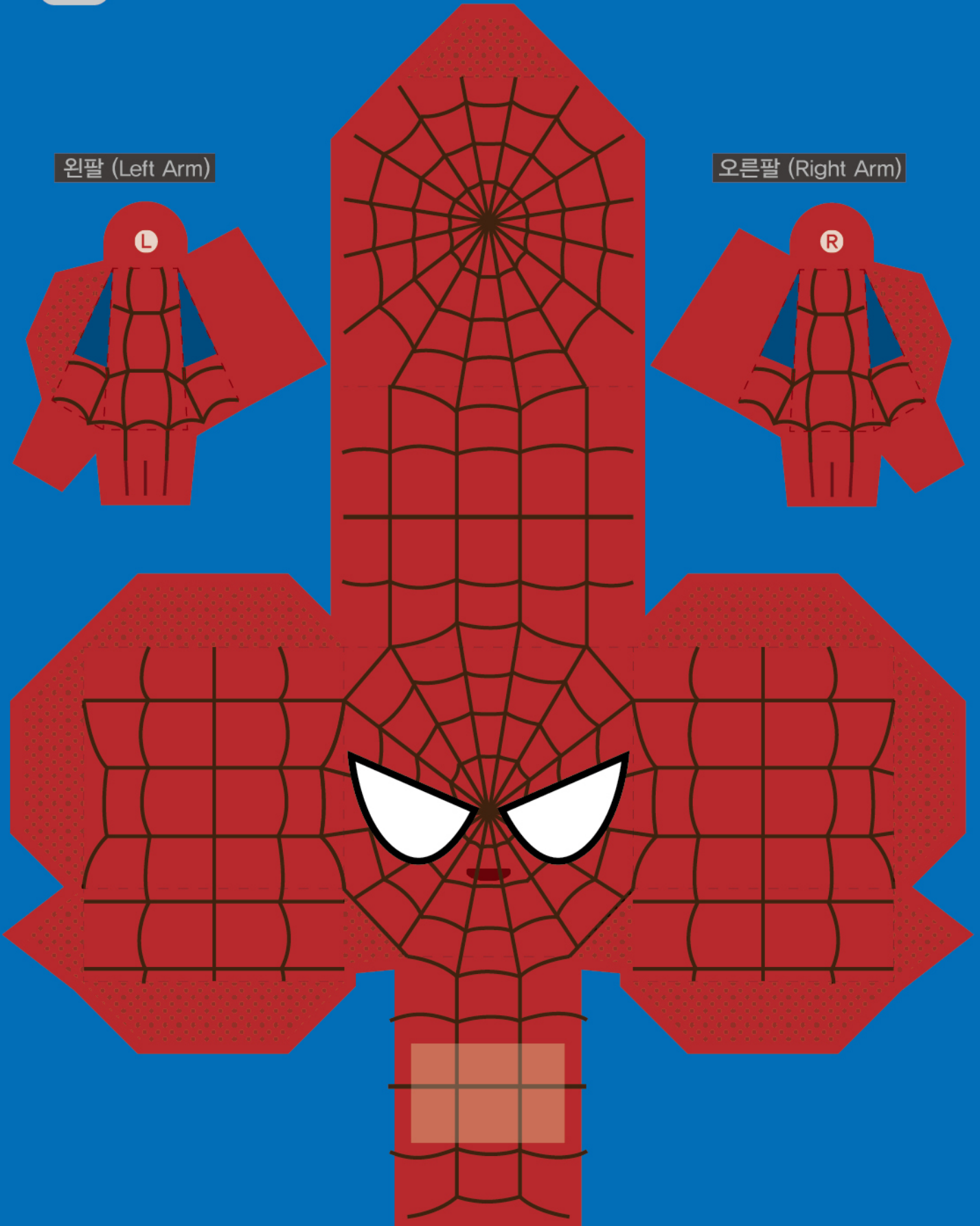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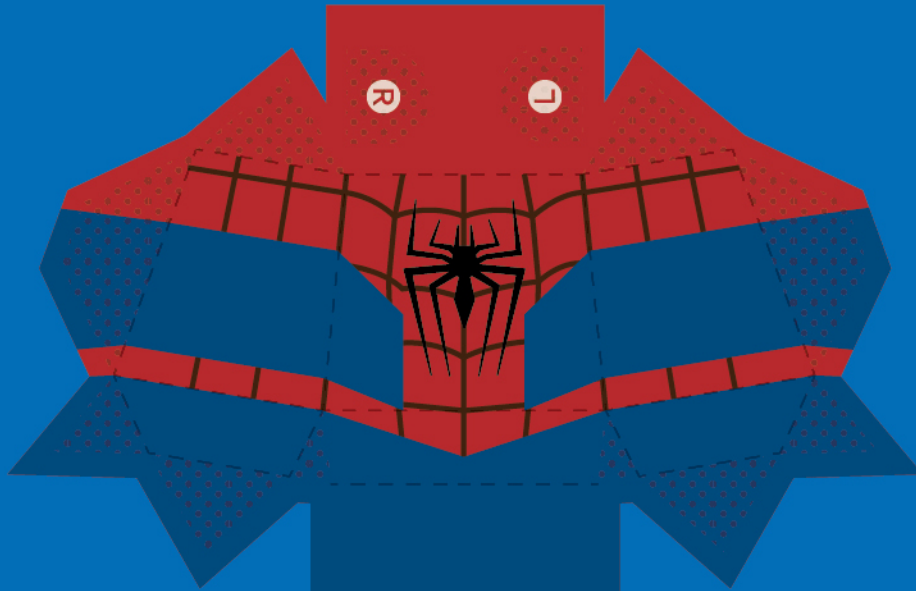
머리(Head)

왼팔 (Left Arm)

오른팔 (Right 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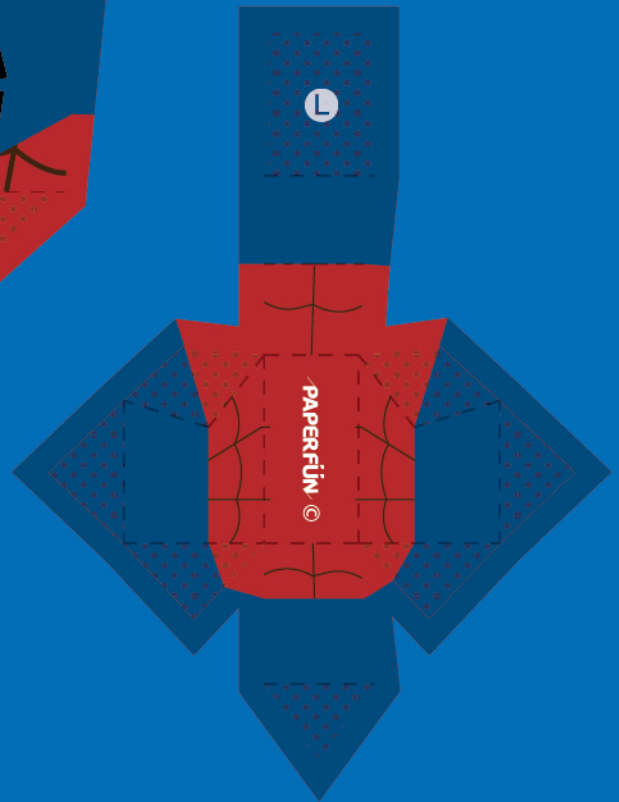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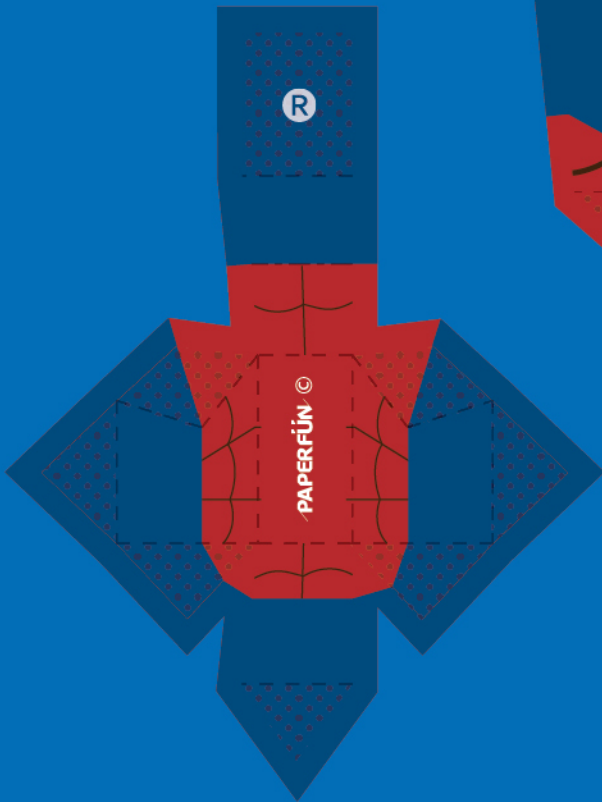


몸통 (Body)



오른다리 (Right Leg)

왼다리 (Left Leg)



손으로 뜯어서 아래 참조사항과 같이 접어주세요.

참조사항 : ----- ▲ 산접기 | ----- ▢ 계곡접기 | ▢ 풀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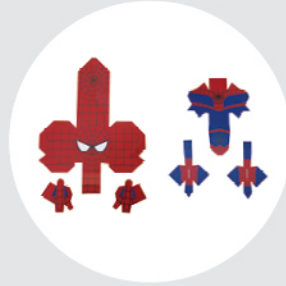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II

위기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나타나는 슈퍼 히어로!
자녀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팀원·반원들과 함께 페이퍼토이를 만들어보자.
머리를 맞대고 한 부분 한 부분 완성해갈 수록 슈퍼 히어로 스파이더맨이 내 손에!

만들기 순서



▶ 준비물: 풀 or 순간접착제



① 선을 따라 얼굴과 몸통, 팔다리를 떼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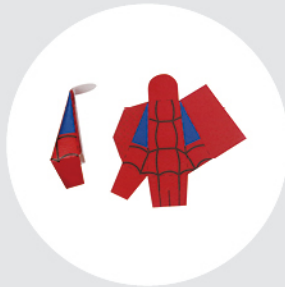
② 스파이더맨의 머리 부분을 박스 모양으로 접어 만든다.

TIP 머리 뒷부분은 풀로 붙이지 말고 남겨둘 것



③ 몸통을 만든다.

TIP 이때 몸통 등 부분은 풀로 붙이지 말고 남겨둘 것



④ 팔 부분을 만든다.



⑤ 다리 부분을 만든다.



⑥ 팔 부분을 몸통과 연결한다.



⑦ 몸통과 머리를 풀로 붙여 연결한다.

TIP 이때 등 부분과 머리 부분의 열린 곳을 이용할 것



⑧ 등 부분과 머리 부분 열린 곳을 풀로 붙여준다.



⑨ 다리 부분을 붙인다.



⑩ 내 손으로 만드는 스파이더맨 완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우하이텍이 창조적 신기술로
새 미래를 엽니다.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터,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